

29 | 아파트 관리 및 보수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복막내 중피종

성별	남	나이	62세	직종	아파트 관리 및 보수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 개 요

근로자 C는 1995년 7월부터 여러 아파트의 관리 및 보수 업무관리를 하였다. 2008년 4월경 복부 팽만감이 있었으며, 현재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으로 보고 치료 중이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C는 1973년~1988년까지 탄광 광부로 종사하였고, 슈퍼 가게 운영 등을 거쳐 1995년부터 아파트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진노동환경연구소에서 C가 근무했던 아파트 일부를 방문하여 시설의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2곳 지하 기계실 물 펌프 시설에 사용되는 가스켓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으며, 또한 아파트 1곳 기계실 옆 기사들이 주로 쉬면서 생활하는 공간인 사무실의 천장텍스에 백석면이 3%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3 | 의학적 소견

근로자 C는 탄광 광부로 일하던 당시의 분진 노출 때문인지 탄광부 진폐증의 소견이 의심되는 외에 특이한 질병을 앓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흡연은 현재 중단 상태로 약 40년간 하루에 1갑 정도 피웠다고 한다. 2008년 4월경

복부 팽만감이 있었으며, 같은 해 8월 복수로 복강경 생검을 실시하였고, 병리 조직검사 결과 비정형의 유두상 중피조직 증식이 기질부로 미소 침습됨이 확인되었다. 병리과 자문을 통해 해당 소견을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으로 보고 치료 중이다. 흉부 X-선 및 흉부 CT 소견 상 흉막반 및 폐 섬유화 소견은 석면노출로 인한 병변으로 보여 석면노출의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의무기록 상의 복막 내 중피종에 대한 해부병리학적 소견은 일반적인 악성 중피종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었다.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은 간엽성 종양인 중피종의 특별한 아형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매우 느린 진행과 다양한 예후를 보인다. 악성 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된 나이가 많은 남성의 장액성 공간에 잘 발생하나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은 석면노출이 없는 가임기여성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은 석면노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헌 상 여성에서는 물론 남성에서 고분화성 유두상 중피종이 석면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

4 결 론

근로자 C는 복막내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는데,

- ① 업무와 관련되어 석면사용에 노출 가능성이 일부 의심되나,
- ②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은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뚜렷한 역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근로자 C의 복막내 중피종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